

“부처님 통해 지혜의 눈을 뜨길”

천룡사 무등 스님, 광주대 불교동아리방서 아미타불 점안식 봉행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80~90년대 광주불교는 살아있었다. 어린 이회부터 청소년, 대학생, 청년회에 이르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광주불교교육원과 같은 교육단체까지 더해져 내용면에서도 풍성한 시기였다.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단체를 말한다면, 대학생 불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광주지역 대학의 불교 동아리는 이제 2곳만 남았다. 그나마도 거의 명맥만을 유지한 채 3~4명의 회원들만 있는 상태이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생 불교학생



회는 전남대와 광주대학교간 동아리가 개설돼 여러 포교분야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1일 광주대학교 불교학생회에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최근 1~2년간 방치된 동아리방을 정비해 지역의 스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봉행한 것이다.

이들은 동아리방에 새로이 불단을 조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봉안해 대학생 포교를 위한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광주대 불교동아리의 재도약에는 천룡사 무등 스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처님을 통해 참된 지혜의 눈을 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스님과 광주대의 인연은 올해 초 스님이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할 하

면서 시작됐다. 오래전 전남대 불교 학생회 지도 법사를 맡았던 스님은 개학 후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을 찾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동아리방은 폐쇄 직전이었다.

스님은 수소문 끝에 이전에 활동했던 3~4명의 회원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회원들을 모집해 10여명의 회원들이 불교학생회에 동참했다.

비록 몇 안 되는 회원들이지만 현재 광주불교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세력이 만들어져야한다던 스님의 발언은 어느새 범당을 새로 단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점안식에는 성오 스님, 현지 스님, 시각 스님을 비롯해 이전에 활

동을 했던 동문들이 함께했다.

무등 스님은 이 자리에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향후 불교예절과 교리와 역사, 초경법회 그리고 신행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종교이며 스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날 모신 아미타부처님은 높이 1m의 목조불로 불교학생회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자비사상으로 나눔 실천

광주생명나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6월 20일 빛고을시민회관에서 '2011아픈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발병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해 만성신부전, 루프스성 신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신음하는 12살된 남기우 어린이와 2명의 환우의 치료비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는 광주불교방송 이지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굿메마루의 판교, 반야유치원생들의 울동, 해프는 다문화센터 아이들이 오거리나, 조선대학교 무용팀의 무용, 성악가 김제선, 김해미의 성악, 광주생명나

눔 이사들과 김은희 후원회장의 발원기도, 가수 강신, 김원중씨의 노래, 환우치료비 전달식 진행된다. 행사의 마지막은 광주생명나눔 이사스님들과 유치원아이들이 함께 동요를 합창하고, 홍보가수 주권기씨의 노래로 펼쳐졌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들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조금마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출연진 모두가 무료출연(재능기부)을 하여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행사수익금 전액은 환우지원금에 사용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치료기금도 함께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군산 동국사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된다

문화재청, 석가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군산 동국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전북지방문화재와 복장유물의 보물 승격을 지정예고 한다고 관보를 통해 6월20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는 전북지방문화재 제213호인 석가여래와 가섭존자상, 아난존자의 삼존상과 이 삼존상에

서 발견된 복장유물 373점이 봉안돼 있다. 삼존상에서 발견된 조선중기의 전적류(경전)와 후령통 등 373점도 모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일괄 지정돼 보호받게 됐다.

군산 동국사에서의 삼존불이 보물로 지정 예고됨으로써 군산지역에는 발산리 석등과 석탑과 함께 3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으며 사찰에서 보유하는 보물급 문화재는 이번 동국사 삼존상이 유일하다.

동국사 삼존상은 본존불인 석가여래불과 가섭존자, 아난존자로 구

성돼 다른 절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희귀성이 높은 유물이다. 또한 제작 연대와 봉안처 등의 명확한 자료가 함께 발견돼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석가여래불의 형식과 가섭존자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생동감 있는 표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식 사찰에 조선시대의 삼존상이 봉안된 것은 본래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봉안돼 있던 불상을 전북 중무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국 스님(1913년~1983년)이 현재의 동국사로 모셔와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하나되기

친선 체육대회 열고 화합 도모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은 6월 19일 상무중학교 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포교사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영근 단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교활동을 전념해준 포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지역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겠다”

KBS 전주총국 ‘디딤돌 봉사단’ 봉사활동

금산사복지원에서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 (관장 보연)은 KBS 전주방송총국의 봉사단체인 ‘디딤돌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장수(영정)사진촬영과 방송에 관한 특강 등을 6월 21일 진행했다.

서원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장수사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본 메이크업부터 사진촬영, 액자까지 완성해 전달하는 이 행사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봉사로 15명의 어르신들의 사진을 촬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교환경운동의 지평 확장을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심진 스님과 도신 스님, 법승 스님의 노래와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정윤 스님의 성악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가야금병창의 다솔 스님과 서울 선(禪)무용단의 선무,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의 환경노래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환경보호 및 빗그릇운동 캠페인, 초록세상 밝은마음 대중공양, 어린이생태학교, 선재역사문화탐방,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나누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나누기, 망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행사 관계자는 “생명평화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여행 블로거, 산사에 빠지다

익산시, 여행 블로거 초청 송림사 등 팸투어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여행 블로거들이 익산 팸투어의 일환으로 송림사에서 산사체험을 하며 대산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익산시는 ‘화합과 소통, 치유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행블로거 22명을 초청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를 6월 18~19일 1박 2일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천년 고찰 송림사에서 범종 타종, 발우공양 및 108배, 참선 등 전통사찰 체험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8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향채종 풍류의 공연과 함께 보석박물관에서 이한수 시장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관광홍보 영상물 상영과 관광설명회가 열렸다.

19일 아침에는 성당포구마을에서 금강의 벚길을 따라 1천 500년

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백제와의 역사문화 길을 물살을 가르며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도시와 달리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교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익산시의 특징을 살린 ‘4색 종교 유무현 자원’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농촌마을의 훈훈한 인심이 더해진 송포마을 시골밥상과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꽃향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송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산사에 숙박하며 산사체험을 경험해 보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의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지난 1986년 진승공예대전에서 「금니 金尼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리나라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란 나눔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탕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증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